

기록화 스토리텔링 방법론 연구

Research on the Methodology of Documentation Storytelling

배은경(Bae, Eun-Kyung)*

1. 머리말
2. 기록화 스토리텔링의 개념
3. 기록화 스토리텔링 연구를 위한 기호학
4. 역사 담론과 기록화 스토리텔링
5. 기록화 스토리텔링 세미오시스
6. 맺음말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강사(baepuzzle@hanmail.net).

■ 투고일: 2021년 09월 27일 ■ 최종심사일: 2021년 10월 11일 ■ 최종확정일: 2021년 10월 21일.

■ 기록학연구 70, 245-276,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70.245>

〈초록〉

본고는 기록화 스토리텔링의 개념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기록 활용'이 기록학계의 화두로 떠오른 후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모색되고 있다. 스토리텔링도 그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기록 활용을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을 '기록화 스토리텔링'으로 규정하고, '기록의 기록으로서의 가치구현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담론의 총체'로 개념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록화 스토리텔링 이론의 정초(定礎)를 목적으로 기록학, 스토리텔링, 기호학, 언어학 등 다양한 이론을 도입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가 잉태한 디지털 시대의 기록학은 두 시대의 학문적 경향을 총체적으로 계통화할 과제를 가진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시대의 기록화의 문제이다. 기록화 스토리텔링 역시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이론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기록화'를 가변적이고도 실천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화에 따른 결과를 '기록화 스토리텔링', 즉 '기록의 가치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기호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제어 : 기록화, 스토리텔링, 기록화 스토리텔링, 퍼스, 기호학, 세미오시스, 역사담론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concept and methodology of documentation storytelling. After 'use of records' has emerged as a hot topic in the archivologic field, various methodologies are being sought for utilization. Storytelling is one of them. This study defines storytelling as a methodology for the utilization of records as 'documentation storytelling' and conceptualizes it as 'the totality of various discourse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value of records as records'. This study introduces various theories such as archiving, storytelling, semiotics, and linguistic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documentation storytelling.

Archivology in the digital era ,conceived by the analog era, has the task of systematizing the academic trends of the two eras. One of the tasks is about documentation in the digital age. Documentation storytelling is also a theory required in the digital age. This study defines 'documentation' in the digital age as a variable and practical act, and defines the result of documentation as 'documentation storytelling', that is, 'a semiosis in which the value of records is constantly created'.

Keywords : documentation, storytelling, documentation storytelling, Peirce, semiosis, historical discourse

1. 머리말

본고는 기록화 스토리텔링의 개념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이다.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기록화의 대상으로서 기록의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記述) 형식의 해석이며, 기록의 가치에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담론의 총체이다. 여기서 스토리텔러는 개인적 경험과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기록 리터러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해석 행위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 즉 기록 해석의 원리와 분석을 위한 이론이 요구된다.

기록학에서의 '기록화'는 일반적으로 메타기록 생성을 의미한다. 아주 오래전 기록 보존의 가치가 발생하면서 생겨난 전통적 기록처리방식이다. '권력자가 머무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아케이온(archeion)에서 유래된 '아카이브'는 말 그대로 권력자의 정치적 명분을 보호하는 곳이었다. 소수 권력층의 소통수단이던 '문자'로 남겨진 기록에는 '문자'로 적힌 메타기록이 남겨졌다. 기록의 증거적 가치는 일정한 권력 집단에

꾸준히 복무했고, 기록화 과정은 자연스럽게 관료화되었다. 이 같은 경향의 기록화는 유럽을 죽음의 땅으로 만든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까지도 온전히 존속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인들은 오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현실과 파시즘에 희생당한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교훈 삼고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조국의 현실을 영상에 담아 다큐 방식의 영화로 기록한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과 영국의 프리시네마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조은하, 이대범, 2008, 129-130). 박제화된 경향은 있으나 나치즘의 희생자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 연구 및 그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위로와 추모행위(최혜실, 2011, 182) 역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새로운 기록화 방식이다.

1990년대 인터넷 발명과 함께 디지털 기록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록이 등장했다. 생산 시점부터 아주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수집과 선별, 보존의 방법도 보다 용이해졌다. 자유로운 복제가 가능한 기록이라 원본 훼손의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 보존 그 자체보다는 ‘안전한’ 보존이 더욱 중요해졌다. 디지털 기록은 아날로그 시대의 기록과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다. 생겨날 때부터 다른 존재였고, 그것의 수집, 선별, 보존의 방식도 그 존재성에 따른다. 디지털 기록의 기록화는 그런 이유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기록화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의 기록물을 다룰 때 정립된 기록화 이론에 머물러 학습하고 있다. 물론 그 시대의 기록화 이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록화 방법론을 구축하더라도 아날로그 시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변화만큼 그 이론의 변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록화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고와 새로운 관점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록화’에 대한 ‘다른’ 생각이 공존해온 주요 이유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기록에 대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다양하고 다층적이라는 사실이다. 기록을 단순히 ‘정보’로 취급한다면, 기록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단순해지고, 그 평가는 확정적이며, 고정적인 성격을 가진다. 기록을 ‘증거’로 활용한다면, 기록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개인적이거나, 특정적일 수 있다. 기록을 역사연구 사료로 활용한다면, 기록의 가치 평가의 기준은 연구자의 학술적 경험과 의미 체계가 될 것이다. 기록은 그 외의 다양한 이유로 평가되고 그 가치가 결정되고 있다.

둘째, 기록의 가치는 시대적인 성격을 가진다. 기록이 생산된 시점은 하나지만, 그 기록이 해석되고 평가되는 시점은 다양하다. 그래서 해석 시점의 시대성은 그 평가 기준이 되어 기록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기록의 메타기록은 해석 시점과 무관하게 생성된 것이나, 해석 시점에도 유효한 정보로 남는다. 심지어 의심할 수 없는 확증된 사실로 재현된다. 기록의 메타기록 부여를 일종의 기록화로 보는 견해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오늘날 기록의 범주는 정보기술 발전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꾸준히 달라지고, 확장되고 있다. 개인 기록이 사회성을 획득한 대표적 사례인 구술기록은 이미 당당히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업로드된 글도 기록으로 취급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 시위 당시 외쳐진 슬로건으로 촛불 시위의 특성을 연구한 논문도 있다.(이상현 외, 20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개인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기록은 그 현실적 가치로 기록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록의 정태적 속성이 실천적 의미를 담보할 때 기록은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며, 그것이 곧 기록의 ‘기록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기록은 날 때부터 기록으로 규정되는 공공기록, 행정기록과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이는 제도화된 기록으로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입증 받은 것은 아니다. 이 기록들은 제도적으로 ‘기록’이라는 옷을 입고 태

어날 뿐이다.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기록 자체의 보편적 가치이다. 이것은 기록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가치이다. 아카이브의 어두운 병커에 남겨진 기록도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나,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발현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자는 상기 명제를 전제로 기록화를 기록의 가치가 구현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기록화 스토리텔링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론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제를 입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며, 목적이다.

‘기록화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은 본 연구자가 만들었다. 그래서 ‘기록화 스토리텔링’에 대한 선행연구는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이 전부라 할 수 있다(노명환 외, 2019; 배은경, 2019). 그러나 ‘기록화’와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또한 괄목할만하다. ‘기록화 담론’과 관련해서는 주로 설문원의 논문을 참고했다(설문원, 2010; 2012; 2013; 2019). 설문원은 기록화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록화를 ‘기록의 의미와 맥락의 재획득’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연구자의 ‘기록화 스토리텔링’과 그 기본적 맥락이 유사하다. 설문원의 다수 논문은 한국 기록학계의 기록화 담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스토리텔링 연구에서는 최혜실(최혜실, 2011)과 이인화(이인화, 2014)의 역할이 크다.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최초로 이론화한 최혜실의 연구는 본 논제가 구축한 스토리텔링 방법론의 초석을 마련 해주었고, 이인화의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법론의 큰 밑그림이 되어 주었다. 특히 본 논제에 중요한 발상을 제공한 송효섭(송효섭, 2014; 2018)과 박여성(박여성, 2012; 2017)의 연구가 있다. 송효섭은 역사 서술의 리얼리티를 뫼토스와 로고스의 기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기록 생산의 이유를 새롭게 재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상을 제공했다. 또한, 기록화 스토리텔링의 기호학적 해석에서도 방향을 잡아 주었다. 박여성의 개념사 연구와 역사의미론은 연구자의 기록 텍스트

트 및 개념 연구에 결정적 단서를 주었다. 특히 기록의 생산 당시의 언어적 표상성과 그 시대적 의미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발표된 문향기, 김익한의 논문(문향기, 김익한, 2021)도 선행연구로 그 의미를 가진다. 논문이 정립한 ‘실재와 기록, 기억의 변증법적 상호관계’는 기록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했다. 본고는 기록화에 대한 기록학계의 관점에 근거해 스토리텔링 방법론, 기호학, 언어학 등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초하고 있는 기록화 스토리텔링 개념은 외현적으로는 기록화와 스토리텔링의 조합이나, 연구자가 목적하는 바는 단순한 정량적 결합이 아니다. 만약 본 연구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기록화 스토리텔링의 언어적 결합과 무관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일단 ‘기록화’와 ‘스토리텔링’이 내포한 기존 담론에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여기서 출발한 개념 정초의 시도가 어떤 결론을 내오더라도 본 연구는 서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기록화 스토리텔링 개념을 담론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 줄 것이다.

2. 기록화 스토리텔링의 개념

‘기록화’는 기록에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여기서 ‘기록’은 기록화 행위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기록화의 주체가 인간이며, 인간의 행위 결과가 기록화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공공기록물처럼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본래 함유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기록이더라도 기록 스스로 기록화될 수 없다. 기록화는 인간의 목적 의식적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기록화는 기록의 목록화 또는 메타기록 생성을 의미한

다. 메타기록은 기록에 관한 일종의 형이상학적 정보를 알려주는 표상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메타기록은 ‘사실’로 간주되어 논란의 여지 없는 확정적 정보가 된다. 일반적으로 기록명, 생산일자, 생산자, 형태, 고유번호, 소장기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메타기록은 비서사적이다. 즉, 간결하면서도 개별적인 정보 유형은 실증적이며, 확정적일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편견을 제공한다(White, 1979 22-23).

기록은 과거의 생산물이다. 그래서 기록화의 행위 주체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과거의 증거를 현재로 가져와 기록화한다(송효섭, 2014, 40). 여기서 발생하는 담론은 기록에 관한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다루고 있는 시점은 현재이다. 그래서 기록에 대한 현재적 관점에 근거한 역사적 통찰과 재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기록화는 기록 생산의 불가피성과 그것의 현존하는 역사적 이유, 그리고 현재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도출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기록화는 기록에 대한 사유와 함께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실천적인 행위가 된다.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기록의 가치 구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담론이며, 다양한 서사적 기호체계로 발현된다. 주로 언어상징으로 표현되는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기록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지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기록이 가지는 본래 가치만을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되는 재맥락화로 확장된다.

그렇다면 기록화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텔링’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원론적인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는 1995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개최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페스티벌의 모토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자기 이야기를 웹에 올려 작가가 되자”였다. 개인의 이야기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웹이라는 공간이

소개되었고,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글쓰기의 일상화도 예견되었다. 이 페스티벌을 조직한 인물은 멀티미디어 예술가였던 다나 애칠리(Dana Atchley, 1941~2000)였다. 그는 자신의 조부가 찍어놓은 비디오 클립을 이용해 가족의 역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물을 제작했고, 이 작품을 페스티벌에 소개했다(이인화, 2014, 115). 이로써 아날로그 시대의 영상 테이프와 디지털 신기술이 융합되어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출현했다. ‘스토리텔링’은 본래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의미한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이전 시대에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오늘날처럼 사용한 적이 없다. 즉,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시대가 낳은 신 개념이다.

〈그림 1〉 스토리텔링의 담론적 구성

story(이야기) + tell(소통 또는 소통매체) + ing(담론)

위의 도식처럼 스토리텔링은 ‘story+tell+ing’로 구성되어 있다. ‘스토리’는 단어 뜻 그대로 ‘이야기’이다. 여기서 이야기는 흔히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인물, 사건, 배경과 같은 3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원인과 결과라는 이야기 맥락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와 비교된다. ‘tell’은 ‘말하기’이다. 그러나 여기서 ‘tell’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통 행위 또는 소통 매체로 해석된다. ‘ing’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즉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핵심 키워드인 ‘상호작용성’이 작동되는 지점이다(이동은, 2016, 59; 변민주, 2011, 48-49).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생성되는 담론은 바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즉, ‘스토리텔링’은 단어 그 자체가 진행형이다. 이것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샘솟게 하는 우물과 같은 이야기 상자와는 다르다. 오히려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고받

는 대화와 유사하다. 그 대화에는 공감이라는 목적이 있다. 스토리텔링도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이다.

이야기 개념은 기원전 5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에서 시작되었다. 시학은 시(詩)에 관해 쓴 글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는 ‘이야기’를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를 비극과 희극으로 나눴다. 비극은 집단적 성찰을 끌어내는 진지한 드라마였고, 희극은 시대적 문제를 꼬집는 풍자극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통해 집단적 카타르시스, 즉 ‘정서적 배설’이 실현된다고 했다(Tiemo, 2002, 16-19). 이 표현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나, 사회적 인간은 사회가 배태한 고통을 집단적으로 해소함으로 상처를 치유받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진지한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의 모방”이라고 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비극은 주로 영웅 이야기였다. 그런데 ‘모방’의 대상은 영웅 그 자체가 아닌 영웅이 행한 행위였다. 기원전 472년 아테네의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아이스킬로스(Aeschylus: B.C. 525-455)의 『페르시아인』이라는 첫 비극이 공연되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한 그리스 아테네의 승리를 칭송하는 내용이였다. 관객들도 살라미스 해전에 참가했던 그리스 용사들이었다고 한다. 이 비극은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의 오만함을 꾸짖고 있었다. 선친 다리우스 왕이 이룩한 업적을 자신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전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않은 크세르크세스를 다리우스왕이 유령으로 등장해 혼을 내고 있었고, 크세르크세스 역을 맡은 배우는 오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리스인 관객들도 함께 울었다고 한다. 전쟁을 함께 겪은 아테네 군인들은 적국 왕과 그 선친의 대사를 들으며 충분히 공감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흘린 아테네 시민의 눈물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로 보았다(Tiemo, 2002, 113).

작품 『페르시아인』을 통한 ‘storytelling’ 구성은 어떻게 될까. ‘story’는 작품 『페르시아인』이 될 것이고, ‘tell’은 ‘디오니소스 극장에서의 공연’

이 될 것이며, ‘ing’는 공감, 즉 카타르시스가 될 것이다. 이야기 『페르시아인』을 극장 공연 형식의 연극을 통해 즐기면서 ‘카타르시스’를 공감한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 『페르시아인』의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아테네 시민이 공감한 카타르시스일 것이다.

발터 벤야민은 정보와 차별되는 스토리의 속성을 다음의 4가지로 특징짓고 있다(이인화, 2014, 16-28). 첫째, 스토리의 ‘원방성’이다. 스토리는 시간·공간적으로 거리를 가지며, 화자가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비일상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반면, 정보는 현재의 시점에서 검증 가능한 이야기를 의미한다.

둘째는 스토리의 ‘기억유도성’이다. 이 특징은 세 번째 ‘장기지속성’과 연결된다. 스토리는 오래 기억되고 전달되려는 속성을 가진다. 반면, 정보는 휘발적 경향을 가진다. 그래서 정보는 자극적인 표현을 지향하는 반면, 스토리는 화자의 보편타당한 경험과 결합하여 긴 시간 기억되려는 경향을 가진다.

셋째는 스토리의 ‘화자성’이다. 사건과 이를 둘러싼 상황,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의 흔적을 전달하려는 속성이다. 여기서 사건의 실체를 그대로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정보는 사건과 사물에 대한 나름의 순수한 실제 전달을 지향한다.

발터 벤야민의 4가지 속성은 스토리의 본성과 인간의 인지 능력, 즉 기억과 망각의 관계성에 근거해 도출된 것이다. 인류는 기억의 한계인 망각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의 대안으로 매체를 활용해왔다. 동굴벽화, 점토판, 파피루스, 종이, 그림, 영상, 오늘날의 디지털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보존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표현과 보존’의 욕망은 타인과의 공감을 위한 이야기적 서사와 망각에 대비한 보존매체의 개발을 가져왔고, 이 결과가 바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발터 벤야민의 이론에서 흥미로운 점이 포착되었다. 스토

리와 정보의 속성 가운데 ‘기록’의 성질이 엇보인다는 것이다. 사건에 관한 정보는 장기 기억과 보존을 위해 ‘기록’의 형태로 생산되고, 기록은 긴 세월 다양한 서사를 이루며 소통되면서, 역사적 담론으로 발현되고 확장된다. 이 과정은 ‘기록화 스토리텔링’이 형성되는 과정과도 같다.

1984년 미국아키비스트협회(SAA)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사회의 표상을 기록의 개별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본고가 다루는 기록화 스토리텔링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기록화의 주체를 아키비스트로 한정하는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미래 세대를 위해 과거를 생산하는 주체”이며, 동시에 “사회적 역사적 기억을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는 책임”의 수행 주체(설문원, 2010, 17)는 인류 전체라고 생각한다. 기록은 이미 전통적인 ‘아카이브’ 구조에서 벗어나 일상 공간으로 확장되어 생산되고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출현 배경은 소수집단과 사회적 약자의 “대항 기억을 기록화”하는 것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기록화 방법이다(설문원, 2010, 35). 이런 점에서는 본 연구의 기록화 스토리텔링과 중심 생각이 닮아있다. 기록의 가치는 생산 당시의 가치에 한정되지 않고, 기록의 시대적 의미와 실천성에 따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록이 가지는 본래적 의미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록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현할 수 없다. 인간이 기록을 평가, 분석,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가 입혀진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이 기록화이며,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총체적 담론이 바로 기록화 스토리텔링이다.

결론적으로, 기록화는 확정적이며 고정적인 기록에 대한 기록 생성이 아니다. 기록화는 그 자체가 설명 가능성, 즉 내러티브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기록화의 서사성은 기록 가치의 알파(a)성을 창출한다. 그리고 양질의 알파는 기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가치 확장을 보여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3. 기록화 스토리텔링 연구를 위한 기호학

기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거나 사물을 지시하기 위해 쓰이는 부호나 그림, 문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그 어떤 것”이다(Eco, 1997, 37). 여기서 전자의 “다른 무엇”과 후자의 ‘그 어떤 것’은 연관성은 있으나 동일하지 않다. 피스의 세미오시스에 따르면 전자의 ‘다른 무엇’은 ‘대상체’이고, 후자의 ‘그 어떤 것’은 ‘기호체’ 또는 ‘표상체’이다. 즉, ‘대상체’는 오히려 청자에게 낯선 것이기에, 친숙한 후자의 ‘그 어떤 것’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상체와 표상체 사이의 상이성이 크면 클수록 대상체의 의미는 더욱 분명하게 전달된다. 기호에 대한 학문인 기호학은 소통의 학문이다. 다양한 소통의 방법과 그 매커니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소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의미와 그에 대한 담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명분보다는 실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을 발전시킨 미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피스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기호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언어학자 소쉬르와는 명백히 다른 기호학을 정립했다(노양진, 2016, 96). 소쉬르는 기호를 고정적이며 불변의 것으로 규정했던 반면, 피스는 기호의 ‘무한기호작용’과 이에 따른 무한한 해석과정을 강조했다. 피스는 기호가 변화하는 원리를 인간의 사고(思考)체계에서 찾았고, ‘사고 과정 그 자체’를 기호로 규정했다. 인간의 사고를 곧 기호로, 인간의 생명을 기호의 연쇄체로 규정했다(연희원, 2011, 128-131).

피스는 소쉬르와 달리 3항 이론을 제시했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 이 두 요소로 기호가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던 반면, 피스는 기호가 아닌 기호과정, 즉 세미오시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대상체, 표상체(기호체), 해석체(의미체)가 기호과정에서 끊임없이 상호 작용한

다고 보았다. 여기서 대상체는 기호체가 지칭하는 실제 오브제이며, 표상체는 대상체에 대한 기호이고, 해석체는 기호, 즉 표상체에 대한 수용자의 심상이다. 소쉬르는 하나의 기호에 하나의 의미만이 성립된다고 주장했지만, 퍼스는 달랐다. 그는 하나의 대상체에 하나의 기호가 성립하고 있지만, 그 둘의 관계에서 도출된 의미는 최종적이지 않고, 기호과정을 통해 꾸준히 재생산됨을 강조했다(강병창, 2017, 5).

퍼스는 기호를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이해를 유도하는 개념으로 규정했다(노양진, 2016, 101-103). 일반적인 기호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만, ‘타인의 이해를 유도’하는 작용을 분명하게 덧붙이고 있다. 후자의 개념은 ‘해석체’를 의미한다. ‘그 자체’인 대상체와 ‘다른 어떤 것’인 표상체가 만나 생성되는 의미이다. 즉, 퍼스가 주목한 것은 관계성이다.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제시하는 기호 제공자가 따로 존재한다. 기호 제공자는 대상체와 표상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를 타인에게 제시한다. 여기서 기호 제공자와 그것을 해석하는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기호 제공자가 대상체와 표상체의 관계를 통해 의도한 의미를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타인이 반드시 그 의미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관계성이 도출된다. 퍼스는 기호 개념에 다양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는 기호의 작용과 역동성,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작용을 ‘세미오시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언어학에 기초해 형성된 소쉬르 기호학과의 다른 점이다.

퍼스는 대상체와 표상체의 관계에 따라 기호를 도상(icon), 지표(index), 상징(symbol)의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도상기호는 대상체와 유사한 표상체를 제시한 경우이다. 사과 모양을 딴 애플사의 로고가 그 사례이다. 지표기호는 표상체와 대상체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경우이다. 화재와 연기 또는 타는 냄새가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상징기호는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기호이다. 언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러한 유형 분석도 결국엔 관계성에 기초한다. 퍼스 기호학의 핵심은 인간이 주도하는 관계성이며, 인간의 경험적 추론으로 생성하는 끊임없는 의미작용이다(노양진, 2019, 60).

이탈리아의 수사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토 에코는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이 양립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기호학 이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Eco, 1997, 12). 움베르토 에코의 주장은 옳다. 소쉬르는 언어학에 따른 기호학을 제시했기에 그의 기표와 기의 개념은 온전히 언어학적이다. 퍼스는 프래그머티즘에 근거했기에 기호의 실제적 작용에 주목했다. 각자 목적했던 바가 달랐다. 본 연구는 에코의 의견에 따라 퍼스의 세미오시스에 준거해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파롤’은 소쉬르가 주창한 개념으로 개별적으로 발화되는 기호체계이다. ‘랑그’는 파롤에 대(對)한 개념으로 일정한 사회적 법칙과 규범에 따라 발화되는 기호체계이다. 파롤은 랑그를 포함한다. 즉, 랑그로부터 확장되는 영역이 파롤이다. 파롤은 일정한 사회적 규범과 제도로 강제된 랑그에 따라 작용하고 있지만, 항상 랑그 영역 밖의 개별적 발화 공간으로 확장되려는 속성을 가진다. 반면, 랑그는 무원칙하게 확장하려는 파롤을 규범 내로 당기고 있다. 이렇듯 랑그와 파롤은 일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팽팽하게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관계에서 파생된 영역이 바로 파롤이다.

이제, 기호와 서사의 관계를 살펴보자. 폴 코블리는 기호와 내러티브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내러티브는 “기호를 구현하는 특별한 재현 형식”이며, 재현으로서의 내러티브는 “세계에 의미를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했다. 즉, 내러티브는 기호 그 자체이며, 재현된 내러티브는 인류의 삶을 보여주는 기호의 집합체이다. 퍼스의 기호 개념과 유사하다. 더 나아가 폴 코블리는 내러티브 기호는 세계 속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현전(現前)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형하고 재구성하여 “재현(再現)하는 것”이라고 했다(강병창, 2014, 6). 현전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보여주는 주체가 인간이라면, 인간은 대상에 대해 스스로 해석해 보여주는 것이다.

폴 코블리는 또한 “재현소(representamen)로서의 기호는 실제 세계에 현상하는 역동적 대상(dynamic object)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관계된 대상을 가리킬 뿐이며, 이는 실제로 지시적이거나 허구적이기조차 하다”라고 말한다. 즉, 기호는 실체의 재현이 아닌, 실체가 가지는 관계성을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내러티브 기호는 사건을 재현하려는 주체가 선택한 플롯(plot)을 가지고 만든 서사이다. 이는 사실의 재현이 아닌, 사실에 대한 ‘해석’의 재현이다. 내러티브 주체가 선택한 플롯으로 새롭게 배열되고 재구성된 사건에 대한 서사이다(강병창, 2014, 6-7).

그렇다고 내러티브 기호가 거짓 서사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러티브 기호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재현시스템이며, 인간 고유의 방식으로 세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다. 즉, 인간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언어로 표현하고, 이는 내러티브 기호로 재현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내러티브 방식으로 생각한다. 인간 외의 다른 모든 생물도 ‘종 고유의 기호를 가지고 구축한 세계’, 즉 ‘움벨트(umwelt)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들도 자신만의 기호체계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주장이다(강병창, 2014, 8). 이렇듯 종 고유의 기호체계는 다양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코드를 내러티브 모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코드는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기에 소쉬르의 기호학 체계에서는 랑그에 속한다.

러시아 사상가 유리 로트만은 텍스트를 “총체적인 기호”로 규정했다(김수환, 2011, 99). 코블리가 “기호의 집합체”로 규정한 내러티브 개념과 그 기본적 관점이 유사하다. 유리 로트만이 텍스트 개념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 문제는 문화와 텍스트 간 상관성이다. 그는 문화를 “텍스트들의 집합”이자 “텍스트를 산출, 소통, 기억시키는 매커니즘”으로 간주했다. 흔히 문화는 법, 예술, 종교 등과 같은 문화적 구성물로 인식되

나, 이는 인류 역사의 제도적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김수환, 2015, 73). 문화는 인류의 삶 그 자체이며, 인류의 역사 그 자체이다. 그래서 역사는 언어적 기호체로서의 텍스트가 아닌, 인류사의 가치를 함유하는 텍스트로 읽히고, 재텍스트화되는 의미 생산 과정을 통해 해석되고 있다.

기록학에서도 기호학적 요소를 차용해 기록의 정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영국의 기록학자 제프리 여(Geoffrey Yeo)는 기록을 “활동의 지속적 재현”이라 하였다. 그도 기록을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인간 행위에 따른 재현체로 보고 있고, 이 또한, 소쉬르 기호학의 파를 영역에서 현상한다. 제프리 여는 기록이 제공하는 다양한 “어포던스(affordance)”, 즉 행동유도성을 제시하고 있다. 어포던스는 기록 이용자에게 일정한 “활용, 동작, 기능”의 행위를 유발하는 성질로 해석된다. 이는 기록 활용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기록 가치의 확장성을 가져온다. 제프리 여는 기록의 공공적, 행정적 가치에만 주목하는 고전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설문원, 2019, 8).

제프리 여의 기록 담론과 달리 기록을 “고정적 재현물”로 규정하는 견해도 막강하다. 여기서 기록의 ‘고정성’은 주로 확정적 메타데이터로 현상한다. 이는 기록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기호로 기록의 ‘출처주의’에 근거한다. 이 견해에 따른 기록화 전략은 출처와 맥락을 강조한다. 그래서 기록화는 기록환경의 변화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계보로 치환된다. 이는 ISO 15489-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의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을 준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설문원, 2019, 42-43).

설문원의 ‘로컬리티 기록화 전략’(설문원, 2012)과 ‘공간 기반 네트워크형 기록화 전략’은 ‘고정성’보다는 ‘지속성과 실용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그 지속성의 기반은 조직간 “연계와 해석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환경적 요인으로 ‘디지털 기술’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의 고정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기록에 관한 “맥락의 재현과정”이 적용되더라도, 동일 기록에 대한 다양한 재맥락화 과정과 그에 따른 기록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공간 기반 네트워크형 기록화 전략에서 기록화 목적은 ‘지속적인 축적과 확장’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기록의 의미와 맥락을 재획득” 과정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설문원, 김정현, 2013, 235, 267). 결과적으로 기록화는 선정, 수집된 기록에 대한 지속적인 재맥락화와 기록으로서의 가치 획득의 과정이며, 동시에 그 결과물이다. 이는 단절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며, 끊임없는 담론의 형태로 발현된다. 여기서 담론은 ‘설명 가능한’ 기록화, 즉 기록화 스토리텔링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기록도 내러티브 기호이고, 역사적 텍스트이다. 당시 사건에 대한 인간 고유의 이해 방식으로 구축된 재현체이다. 또한, 기록이 생산되던 시점의 언어 기호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여기서 기록 그 자체는 랑그의 영역에 존재하는 표상체이며, 기록의 대상인 사건은 파롤에 속한 사실 그 자체, 즉 기록의 실제 오브제이다.

4. 역사 담론과 기록화 스토리텔링

서기 4세기 교부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세 개의 현재를 제시했다. 과거의 현재인 ‘기억’과 현재의 현재인 ‘주의(attention)’, 미래의 현재인 ‘기대’였다. 그리고 이 세 현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를 ‘서사’가 해결한다고 주장했다(최혜실, 2011, 165).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서사’는 상상력이다.

역사 서술도 다르지 않다. 역사가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로 소환한다. 과거의 기록을 다루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한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적으로 어떻게 조망될지도 고려한다. 역사가는 과거의 사

건을 온전히 재현하고 있는 완전한 기록체를 확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온전한 재현과 완전한 기록체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는 관련 기록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역사의 완전한 재현을 시도한다. 그 방식은 이야기기이다. 역사가는 기록과 기록 간에 발생하는 불일치를 이야기 구조로 해결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언급한 ‘서사’이다.

역사는 왜 이야기 구조로 서술될까.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기 때문이다(최혜실, 2011, 110).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식도 이야기기이며, 세계 속의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도 이야기기이다. 더욱 정확하게는, 인간의 인지 과정 자체가 이야기 구조이다. 그 이유는 언어에 있다. 인간은 언어로 사고한다. 언어는 인간 사고의 재현의 도구만이 아니다. 언어는 사고의 방식이다. 인간의 언어는 구조성과 창조성을 가진다. 언어는 생각의 틀이며, 동시에 생각 그 자체이다.

1891년 소쉬르는 “언어학이 역사과학 이외의 다른 어떤 과학도 아님”을 선언했다(최용호, 2020, 384-385). 이 발언은 ‘역사학으로서의 언어학’을 주창한 것이 아니었다. 인류가 ‘언어’를 통해 삶을 인지하고, 역사를 창조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언어학자였던 소쉬르는 언어적 틀로 기호학을 정립했다. 물론, 소쉬르의 상상력이 그 정도에 멈춰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인지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뿐이다.

1967년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는 『언어학적 전회: 철학적 방법론에 대한 최신 논설(Linguistic turn: Recent essays in philosophical method)』이라는 논문집을 발표했고, 책명과 동일한 ‘언어학적 전회’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 개념은 책의 1부 제목인 “철학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다”로 함축된다. 논리적으로 완벽한 이상언어(Ideal language)를 연구하던 비엔나학파와 일상언어(Ordinary language)를 분석하던 옥스퍼드

학파는 이 책에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과 소쉬르의 구조주의 철학을 계승하고 있었다(최용호, 2020, 76). 특히, 두 개의 언어 세계가 배타적이면서도 공존하는 관계는 소쉬르의 랑그와 파를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었다. 이렇게 ‘언어학적 전회’의 주창자들은 20세기 인문과학을 뒤흔들어놓은 충격적인 철학 담론을 제시했다.

14세기 오컴의 유명론이 실재론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후 오늘날까지도 언어는 단순히 사물을 지칭하는 기호로 인식되곤 한다. 언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언어와는 별개의 존재라는 주장이다. 사물의 본질을 언어 밖의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이며 추상적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 말하는 이데아적 존재와 같다. 이렇듯 신플라톤주의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다. 그러나 리처드 로티는 언어의 존재성에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 언어는 사물의 존재를 만들고, 새로운 사건을 발생하며, 세계를 보여주는 창조적 행위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진리가 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그의 ‘반표상주의’ 이론이 그것이다. 로티는 또한, 언어의 유연성을 주창했다. 언어는 유연적 진화의 산물이고,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더욱이 진리는 이렇게 유연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에 의존해있다고 한다. 로티의 “세계는 말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말할 뿐”이라는 명제로 함축된 그의 관점 역시 극단적 상대주의로 비칠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로티의 반표상주의는 인간의 역사를 신화적으로 표상하는 논리에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표상적 언어관의 유지를 “조상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이 만든 메타포의 시체들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유선, 2016, 9-11).

러셀을 시작으로 비트겐슈타인, 소쉬르로 이어지는 언어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은 인간 사유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소쉬르는 언어를 세상을 표상하는 기호로 규정했던 반면, 리처드 로티는 언어가 세상을 창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그는 언어를 역사 담론의 적극적 주체로

상정했고, 언어가 가지는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식 확장의 에너지를 강조했다. 리처드 로티는 언어가 가지는 세계 창조의 힘을 해석학과 분석철학에서 규명하고 있었다. 그의 업적은 역사를 단지 고정 불변의 기록으로 보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담론으로 보았고, 현재의 정치적 제도를 옹호하는 일은 철학적 정초보다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유선, 2016, 9-11).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 사실에 대한 불변의 진실인가.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 배우고 이해하는 내용은 과거의 실체를 담고 있는 진실인가. 영국의 역사학자 E.H.카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규정했다(유시민, 2018, 234). 역사는 언제든 재맥락화될 수 있는 담론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새롭게 제기되는 증거와 주장으로 언제든 대화의 현장으로 나와 새롭게 재구성될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역사는 인간의 인지활동의 결과물이며, 역사 해석은 시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역사는 고정적일 수 없다.

역사의 현재는 과거 및 미래와 연결된다. 현재는 시간의 흐름으로 계속 이동하며, 과거와 미래도 그에 따른다. 그러나 여기서 불변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사유(思惟)가 현재의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유도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사유의 대상은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이지만, 그 시점으로 돌아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의 특정 사건에 대한 사유의 변화는 다양한 담론으로 현상한다. 역사뿐 아니라, 철학, 문학, 심리학, 인류학 등 다양한 영역의 학문이 관여하면서 그 담론은 더욱 심화되고 확장된다.

역사는 “사건들의 경과에 내재하는 통시적 구조로서 공시적으로 쟁점과 전환점과 위기와 파국을 분명하게 보여준다”(최혜실, 2011, 164). 통시적 역사연구는 역사 과정의 변화와 변천을 강조한다면, 공시적 연

구는 사건을 정태적 구조에서 관찰하면서 일정한 법칙과 원리를 밝히는 작업이다. 역사연구는 일반적으로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서술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으로 일정 시대를 관통하는 사회 구조적 특성, 시대사상, 문화, 예술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 과정의 마디”를 해명하는 것으로 인류사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도 아니다(White, 1979, 17-20). 결국,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직조할 때 그 연결의 실체는 항상 기록이다. 기록은 역사의 유기적 결합과 총체적 구성을 위한 기초 단위이며, 역사 서술의 완성도를 책임지고 있다. 즉, 기록은 그 진실성 여부를 떠나 기록으로서의 본연의 가치와 현실적 의미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제 기록이 역사 담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역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서술이다. 그래서 지난 사건을 증명하고 있는 직접 자료인 기록을 이용한다. 그러나 기록은 과거의 사건에 관해 기술하고 있을 뿐, 과거의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기록자가 사실대로 쓰겠다고 아무리 작정하고 노력해도 사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방법은 없다. 이미 기록자의 생각이 반영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영상기록도 마찬가지이다. 촬영자의 시선으로 찍힌 영상은 촬영자의 관점으로 시각화된다.

역사는 일반적으로 언어로 기술된다. 역사 서술의 주체인 역사가가 활용하는 기록도 주로 언어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역사가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못한 과거의 사건을 언어로 사유하고, 기술한다. 즉, 언어는 역사연구와 서술을 위한 절대적 존재이다.

역사 서술에서 대표적 언어기호는 개념이다. 개념은 역사 발전의 지표이자, 그 발전을 추동하는 원인이 된다(박여성, 2012, 34-37). 인류사의 격변기를 가져온 정체는 언제나 ‘시대사상’이었다. 프랑스 혁명에 불붙인 ‘기대지평’은 계몽사상이었고, 러시아 혁명의 실천적 이론은 마르크스-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사상이었다. 사상은 ‘생각의 표상’이

다. 생각은 그 자체가 언어적 행위이다. 인간은 언어로 생각하고, 언어로 행동하며, 언어로 표현한다. 여기서 언어는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닌, 마음의 움직임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기록과 역사적 개념은 어떻게 관계지을 수 있을까. 기록은 역사적 개념을 내재적으로 포괄한다. 기록을 구성하는 텍스트는 기록의 대상인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기록 생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기록 자체는 기표이고, 기의는 파를 영역의 사건과 사건의 표상체인 기록 간의 관계성이다. 즉, 기록은 기록의 오브제인 사건과 언어적 표현이 내포한 의미와의 관계에서 그 “실효성 또는 적실성”을 획득한다(박여성, 2012, 39-40). 이는 언어적 표상인 기록이 사건 그 자체를 적실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반증한다.

결과적으로 기록은 파를 영역의 사건을 랑그 영역의 언어기호로 적실하게 반영하려는 의식적 행위의 결과물인 셈이다. 즉, 기록자는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으나, 이 행위는 결국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실제로 사건의 정황과 언어적 서술이 일치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일치’보다는 ‘합치’란 단어가 더 적절할 것이다. 기록의 대상체인 사건의 역사적 이유와 전개 과정 등이 언어적 표상체인 기록에 얼마나 적실하게 반영되었는가를 뜻한다.

역사개념에 따른 기록화 스토리텔링 연구를 위해 언어학 이론의 통사론, 의미론 그리고 화용론을 차용할 수 있다. 통사론은 역사 서술을 구성하는 언어적 요소들, 즉 어휘, 전문용어, 수사, 명제, 텍스트 등의 통합적 관계에서 역사적 개념을 추출하는 작업이다. 기록도 일종의 역사적 서술이다. 기록의 서사적 구성 요소에 대한 관계성 분석은 기록화의 1차 과정이며, 기록화를 통한 역사 담론화의 첫 단계이다. 다음으로 2차 단계인 의미론이 있다. 기록 텍스트의 개념적 구성물인 인물, 시간,

공간, 배경, 행위 등을 변별할 수 있는 개념적 단위와 요소들을 추출해 그것이 가지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기호가 가지는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 당시의 기록물에 사용된 ‘인권’이라는 단어는 ‘노예의 인권’이다. 즉, 노예적 종속 관계에서의 해방’을 뜻한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당시의 ‘인권’도 다른 시대적 개념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권’ 개념과는 명확히 다르다. 이렇듯 현대 사전이 규정하는 ‘인권’의 개념으로 기록물에 사용된 어휘 ‘인권’을 해석할 수 없다. 의미론적 기록화 과정은 기록 텍스트에 내포된 시대적 진위성을 밝혀준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이다. 언어학 이론을 차용한 이유가 바로 이 이론에 있다. 화용론은 ‘기록과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기록화의 가치를 규명할 수 있다. 기록은 현재적으로 평가되고, 그 가치가 결정된다. 기록이 어떤 목적과 기능을 가지며, 현존하는 사회를 위해 어떠한 기록적 가치를 가지는지 판명된다. 또한, 특정한 사용자 및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기록이 지향하는 특정한 가치도 규명된다(박여성, 2012, 45-47).

기록화를 위한 언어학적 방법은 다양한 층위의 담론화를 생성하고 있다. 언어학자 부세(Busse)는 역사개념을 구성하는 어휘의 정태성을 기호과정, 즉 세미오시스를 통해 “한층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중력장으로 진입”시켰고, 텍스트 과학자 보그랑드(Beaugrande)는 기호작용을 질료장(material field)과 자료장(data field)의 변증관계로 조명했다. 여기서 질료장은 체계 내적 요소이고, 자료장은 체계 외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신경과 근육이라는 질료장은 음소의 목표를 실행하는 자료장에 연동되며, 음운은 위치(구강,입술)와 동작(마찰,파열)을 위한 질료장을 의미변별을 위한 자료장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자연을 ‘질료와 형상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닮아있다. 보그랑드의 이론은 언어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소쉬르나 촘스키와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언어가 “지속적인 진화를 겪는 역동적인 커뮤니케

이선 체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보그랑드가 생각하는 언어는 “사회와 세계에 대한 통합 지식의 현상”이다. 그래서 언어의 이용 자체가 담론화 생태계를 끊임없이 확장시킨다(박여성, 2012, 41-44).

기록은 표상화된 사건이다. 해당 시대의 사회적 특성과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역동적인 생각, 이를 지지하는 특정 집단의 행위 등이 상호 대립하며 발생하는 것이 사건이며, 이것이 당대 특유의 언어(이상언어와 일상언어의 결합)로 표출된 것이 바로 기록이다. 즉, 사건을 보다 적실하게 파악하려면 활용된 언어의 공시적, 통시적 구조에서의 관계성과 그에 따른 (보편적/개별적, 시대적/역사적) 의미를 추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언어적 텍스트뿐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른 담론의 변화 추이도 그 의미 해석의 대상이 된다.

기록자가 사용한 언어는 당대 언어의 특성을 담지한다. 즉, 생산자는 자신이 속한 언어적 환경과 자신의 인지 능력, 자신만의 언어적 습관 등 특정한 언어적 환경에서 기록을 서술한다. 그래서 기록화를 수행하는 주체는 기록자의 언어 활용의 상태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다. 기록자가 고인일 수 있고, 설령 생존했다 해도 그의 활용 언어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서 고려해볼 대상은 기록 당시의 보편적 언어 환경이다. 물론 이 또한, 정확히 알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결국, 언어로 기술된 과거의 기록으로 기록의 대상체인 사건을 적실하게 인지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적실한 인지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곧 세미오시스, 즉 기호작용으로 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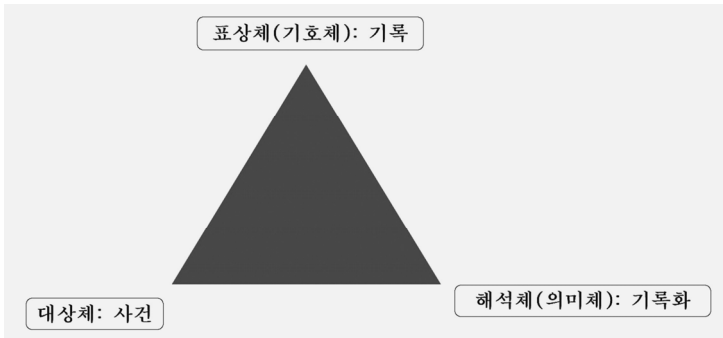
5. 기록화 스토리텔링 세미오시스

이제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으로 기록화 스토리텔링의 기호과정을

설명해보려 한다. 우선, 소쉬르의 기호학을 적용해보겠다. 소쉬르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상관관계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기록화 스토리텔링, 즉 ‘기록의 기록으로서의 가치구현 과정에서 생성되는 총체적 담론’을 기호로 본다면, 기표는 기록화이고, 기의는 기록으로서의 가치구현이 될 것이다. 구조주의 기호학에서 기호는 랑그에 속함으로 기표와 기의는 일정한 관계를 가진다. 즉, 특정 기록에 대한 해석은 유일하다. 이렇듯 고정적으로 관계하는 기표와 기의는 한 쌍으로 기호를 형성한다. 소쉬르 기호학의 부동적 기호는 코드의 형태로 랑그의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되고, 이 코드 간의 맥락이 역사담론을 형성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대상이 빠져있다. 바로 ‘사건과 기록’이다. 기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불가능한 소쉬르의 기호학에서 ‘사건과 기록’은 다른 코드로 존재한다. 또한, 코드 간 관계 역시 소쉬르 기호학의 랑그 개념에 따라 고정적이며 규정적이다. 끊임없이 주고받는 이야기 형식의 담론은 그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소쉬르의 기호학은 역사 담론의 생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특정 기록에 대한 가치가 완고한 등가의 코드로 제도화되는 것이 소쉬르 기호학의 원칙이기 때문이다(Eco, 1997, 11-12).

그렇다면 기록화 스토리텔링에 퍼스의 세미오시스를 적용해보겠다.

〈그림 2〉 기록화 스토리텔링 세미오시스



위 그림은 퍼스의 기호작용에 기록화 스토리텔링 과정을 적용한 도식이다. 소쉬르의 기호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이 기호의 대상체로 설정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표상체는 기록이다. 퍼스의 3항 요소 중 가장 명징한 대상이 표상체, 즉 기호체이다. 여기서 대상체는 기록으로 표상된 사건의 실제 오브제이다. 퍼스는 대상체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분명한 대상이 아닌, 표상체의 “배경(ground)과 같은 관념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즉, “마음의 밖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운반해오는 운반자”다. 마지막으로 해석체는 표상체가 그 누군가에게 작용해 산출된 등가의 또는 더욱 진진된 관념이다. 이는 기록화 과정에서 추출된 기록으로서의 가치로 개별적이고도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 퍼스의 기호과정에는 ‘인간’의 자리가 있다. 인간의 관념에 따른 기호의 가치가 해석체, 즉 의미체이다. 퍼스의 세미오시스를 특징짓는 해석체의 본질은 인간의 마음에 표상된 기호에 대한 인간의 사고이다. 이렇게 산출된 의미체는 새롭게 기호가 되어 일련의 기호과정으로 연결된다(노양진, 2016, 97-104).

기록은 사건의 진실을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현시적인 표시”이다(Eco, 1997, 39). 기록 해석은 사건 그 자체의 가치와 그것의 표상체인 기록과의 관계에서의 기록의 가치를 산출한다. 바로 이러한 기호작용이 기록화이고, 기호작용의 주체는 인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인간의 사유이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개별 인간이 자신의 사유 능력으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 결과는 그 사람의 경험과 정보력 등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즉, 소쉬르가 주장하는 ‘하나의 기호에 작용하는 하나의 의미 관계’는 여기서도 성립되지 않는다.

기록화 스토리텔링 세미오시스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관계성이 있다. 하나는, 대상의 실제 오브제인 사건과 그의 표상체인 기록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표상체인 기록과 그 의미체인 기록화, 즉 기록의 가치구현과의 관계이다. 첫 번째 관계에서는 실제 오브제인 사건을 기

록이 어떻게 기호화하고 있는냐에 따라, 1차기호인 도상기호, 2차기호인 지표기호, 3차기호인 상징기호로 분류할 수 있다. 도상기호는 대상적 성질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고, 지표기호는 대상적 성질의 인과성, 근접성에 근거한 것이다. 1차기호와 2차기호는 사건의 실재성과 연관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징기호는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해석과 상상력’이 필요하다(노양진, 2019, 60). 실제로 사건과 기록과의 관계성은 도상, 지표, 상징적 특징 중 그 어느 하나만을 갖지 않는다. 모두를 가질 수도 있다. 두 번째 요소인 기록과 기록화의 관계성에는 기록화 주체와 관련한 특정한 요인이 깊이 개입된다. 마치 사건과 기록과의 관계에서의 기록자의 역할과 같다. 만약 기록에 대한 메타정보가 없다면, 기록화는 다양한 개연성에 근거해 불확실한 상태로 진행될 것이다. 만약 기록화가 메타기록 생성에 그 목적을 둔다면, 정보성 기록화가 될 것이다. 만약 기록화의 주체가 역사연구자라면, 기록에 근거한 역사 서술이 될 것이다.

기록화 스토리텔링 세미오시스는 기호체인 기록이 대상체인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지 끊임없이 해석하고 산출하는 기호작용이다. 여기서 사건은 파롤 영역에 속한다. 즉, 인류사회를 지배하는 원리와 규범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구체적 진실은 알 수 없다. 이에 반해, 기록은 사건을 표상하는 물리적 실체로 해석 가능한 기호체이다. 기록은 랑그 범주에 속한다.

여기서 랑그와 파롤에 대한 소쉬르 기호학 이론은 기호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익하다. 사건의 표상체인 기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은 부단하며, 끝이 없다. 그리고 그 과정은 랑그 영역의 기록으로 파롤 영역의 사건을 규명하는 것과 파롤 영역의 사건의 진실을 랑그 영역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호작용이다.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언어기호의 틀이 기호작용의 관계를 해

명하는 틀로 사용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기록화 스토리텔링 세미오시스에서 산출되는 모든 의미와 가치가 산출되고 해석되고 규명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총체적 담론이다. 이 담론의 시작은 기록에서 시작되지만, 담론의 끝은 일정할 수 없다. 이렇듯 부단한 담론 생성의 과정이 바로 기호과정, 즉 ‘세미오시스’로 설명되고 있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기록학과 스토리텔링, 기호학, 역사학, 언어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의 개념과 이론을 개방적으로 수용, 활용하면서 나름의 기록화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정초하였다. 소박하게나마 내은 결론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화는 확정적이며 고정적인 메타 기록 생성으로 그 개념이 한정되지 않는다. 기록화는 그 자체가 설명 가능성, 즉 내러티브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기록화의 서사성은 기록 가치의 알파(α)성을 창출한다. 그리고 양질의 알파는 기록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가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기록화는 기록 생산의 불가피성과 기록이 현존하는 역사적 이유, 그리고 현재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도출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기록에 대한 사유와 함께 기록으로서의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기록화는 실천적인 행위이다.

둘째,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시대의 개념이다. 스토리텔링은 실제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약어이다. 그래서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시대의 기록화 스토리텔링’의 줄임말이다. 디지털 시대의 기록에는 아날로그 기록도 있고, 디지털 기록도 있다. 그러나 기록이 기록화되는 과정은 디지털 패러다임에 따른다. 다시 말해, 기록이 어떤 상

태이든 기록화는 디지털화되고 있다.

셋째,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기록의 기록으로서의 가치 획득과정에서 생성되는 담론의 총체이며, 다양한 서사적 기호체계로 발현된다. 주로 언어상징으로 표현되는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기록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지 과정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기록이 가지는 본래 가치만을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시점에서의 끊임없는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단히 생성한다.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기록화’와 ‘스토리텔링’의 정량적, 또는 행위적 결합이 아니다. 양자는 서로에게 행위 발화의 동기를 제공한다. 즉, 기록화와 스토리텔링은 부단한 순환과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 형식의 담론을 양산하는 소통 과정 자체의 기호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기록화 스토리텔링은 기록화에 대한 기호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결과물이며, 담론 생성의 과정 그 자체이다. 본 연구는 기록화 스토리텔링의 작동 원리를 퍼스의 세미오시스에서 찾았다. 기록화 과정에서 획득되는 기록의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확정적이거나 불변적이지 않다. 그 가치는 유동적일 뿐 아니라, 생성적이며 창조적인 성질을 가진다. 그 원리를 기록에 대한 부단한 의미 생성의 과정, 즉 기록화 스토리텔링 세미오시스로 규정했다.

다섯째, 기록은 역사 서술인 동시에 역사의 유기적 결합과 총체적 구성을 위한 기본 단위이다. 또한, 역사 발전의 표상이자 원동력인 역사적 개념을 함유하고 있다. 기록은 사건 그 자체에 대한 진술이기보다는, 사건의 기록화와 기록 생산의 불가피성에 대한 진술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은 기록의 오브제인 사건과 언어적 표상체인 기록, 그리고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미와의 관계에서 그 “적실성”을 획득하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적실성은 완성될 수 없기에 끊임없는 기록 해석의 과정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부단한 의미작용이 발생한다.

여섯째, 본 연구는 기록화 스토리텔링을 피스의 세미오시스에 적용시켜 파롤의 영역에 있는 불가지한 기록의 대상체인 ‘사건’을 기호과정으로 유입했다. 기록의 실제 오브제인 사건은 기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대상일 뿐, 그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록화 스토리텔링 세미오시스는 사건의 진실로 접근하려는 끊임없는 담론의 과정이며, 의미 생성의 과정이다. 기록이 기록으로서 어떤 가치를 보유하는지 기록의 가치에 대한 담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기록화 스토리텔링 세미오시스이며, 그 산출물이 기록화 스토리텔링이다.

본고는 기록화 스토리텔링을 이론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고, 이를 위한 서설에 불과하다. 또한, 남은 과제가 많아 오히려 위로가 되고 있고, 갈 길이 멀어 연구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다. 다음 과제는 기록화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기록의 다양한 영역에 도입해보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환 (2011). 사유하는 구조: 유리 로트만의 기호학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김수환 (2015). 책에 따라 살기: 유리 로트만과 러시아 문화. 서울: 문학과 지성사.
 노명환 외 지음 (2019).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지식출판콘텐츠원.
 노양진 (2016). 피스의 기호 개념과 기호 해석. 철학논총, 83(1), 96-110.
 노양진 (2019). 피스와 상징의 문제. 철학연구, 152, 59-79.
 Michael Tiemo (2002). Aristotle's Poetics for Screenwriters: Storytelling from the Greatest Mind in Western Civilization. London, 김윤철 옮김 (2015). 스토리텔링의 비밀. 고양: 아우라.
 문향기, 김익한 (2021). 기록과 기억의 재현: 삼중의 미메시스로 실재읽기. 기록학연구, 69, 153-187.
 박여성 (2012). 개념사 연구: 역사서술과 언어학의 상호작용. 개념과 소통, 9, 33-90.
 배은경 (2019). 2017년 카셀 도큐멘타 14 “아테네에서 배우기”의 기록화 스토리텔링.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9, 97-136.

- 변민주 (2011). 미디어의 진화와 발전을 이끌어낸 디지털 스토리텔링. 마케팅, 45(11), 42-50.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설문원, 김정현 (2013). 공간 중심의 연계형 기록화의 실행 방안: 부산 지역 동해남부선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36, 233-269.
- 설문원 (2019). 기록이란 무엇인가?: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서의 개념 탐구. 기록학연구, 59, 5-46.
- 강병창 (2014). 내러티브의 상호매체성과 트랜스매체성,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편. 내러티브와 매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42.
- 강병창 (2017). 매체성 관점에서 세미오시스 다시보기: '글그림'의 매체성을 중심으로.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편. 세미오시스의 매체성과 물질성.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지식출판원, 3-43.
- 송효섭 (2014). 역사, 신화, 리얼리티: 역사기호학 서설. 내러티브와 리얼리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송효섭 (2018). 국문학과 탈형이상. 파주: 태학사.
- 연희원 (2011). 에코의 기호학: 미학과 대중문화로 풀어내다. 파주: 한국학술정보.
- Umberto Eco (1997). Semiotica e Filosofia del Linguaggio. Giulio Einaudi. 김성도 옮김 (2009). 기호학과 언어철학. 파주: 열린책들.
- 유시민 (2018). 역사의 역사. 파주: 돌베개.
- 이동은 (2016). 문화콘텐츠학과의 디지털스토리텔링 교육방법론 연구. 인문콘텐츠, 41, 53-73.
- 이상현, 이정은, 김소연, 엄수용 (2018). 기록물로서의 구호의 변화를 통해 본 2016년 촛불집회의 스토리텔링 연구.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6, 23-60.
- 이유선 (2016). 리처드 로티, 우연성·아이러니·연대성.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인화 (2014). 스토리텔링 진화론. 서울: 해냄.
- 조은하, 이대범 (2008). 스토리텔링, 서울: 도서출판 북스힐.
- 최용호 (2020). 언어학적 전회와 그 '이후'. 불어불문학연구, 123, 383-401.
- 최혜실 (2011).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파주: 한울.
- Hayden White (1979).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천형균 옮김 (2011). 메타역사 1.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